



퍼포먼스에 마이크를
활용해 환경문제에
관심을 끌어내는 것이
내 일입니다

TOGETHER⁺

함께

Vol.27 2018 AUTUMN

COVER STORY

환경문제를 재미있게 해결하는 기업을 소개합니다. 거리퍼포먼스 및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유상통프로젝트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쓰레기처리 과정을 재미있게 풀어내 축제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이끌어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날수록 유쾌한 유상통프로젝트의 오동석 대표님이 이번 호의 주인공입니다.

지난 호 독자참여 코너에 참여해 주신 애독자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TOGETHER+함께」에 좋은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9월 초 재단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후원자 의견]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통계적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64세까지만 보고 있지만, 100세 시대를 사는 현재의 60대는 불과 10년 전의 60대와 비교해도 훨씬 젊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더불어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고령인구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생산가능인구로 보는 유한김벌리의 시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신철 님)

한겨레 나눔꽃 캠페인 그 후...

지난 호 <TOGETHER+함께> 26호에 실린 한겨레 나눔꽃 캠페인 <붕어빵 형제>의 사연을 기억하시나요? 붕어빵 장사를 하며 사회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조병천(가명) 군과 그를 지원하며 운동선수의 꿈을 꾸고 있는 고동민(가명) 군의 사연이었습니다. 재단은 한국소년보호협회와 협력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소년원 출소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모금액은 최초 목표액이었던 500만 원을 훨씬 넘는 수치로 3,000만 원이 모였고, 이 중 2,100만 원은 소년원 출신 청년들의 생계비와 구직활동비로 지원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은 사연 모집 진행 및 캠페인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후원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비전 2025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

Vol.27 2018 AUTUMN

발행인 송월주 | 발행일 2018년 8월 31일 | 발행처 (재)함께일하는재단
주소 (0399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6 | 대표전화 02-338-0019
홈페이지 <http://www.hamkke.org>
기획·편집 (재)함께일하는재단 | 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
후원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513-196182-13-105 / 국민은행 032901-04-181772
농협 301-0011-3418-11 / 신한은행 140-008-341200
● 「TOGETHER+ 함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회적경제 조직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 행복합니다 ”

글 | 사회적경제팀 박병혁 팀장



한해 뿌려놓은 땀과 노력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후원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회적경제팀의 박병혁 팀장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입니다. 소셜벤처라고 하는데 사회적 문제를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아이디어가 있지만 사업으로 구체화하기까지 어려움이 있는 기업 40개 팀을 선발하여 초기 창업팀을 육성합니다. 재단에서 육성한 기업가 출신 중에는 공부의신, 빅워크와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업에 성공한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투자자본이 있는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만듭니다. 저희 재단은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들을 서로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이라고도 불립니다. 물론 기업과 정부, 시민 사이에 ‘끼’ 재단이라고 충도 있지만 재단을 통해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어 행복합니다. 모두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C O N T E N T S

- | | |
|---|--|
| 04) 특집 기획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 | 12) 함께하는 일의 흥미
일하는 物
세상을 향해 외쳐라~!
마이크 잡스(microphone jobs) |
| 06) 현장 속으로 1
축제 뒤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유쾌!상쾌!통쾌!한 유상통프로젝트! | 내일에서 on 편지
14) 인터뷰
사회적경제와 함께 인과연 편 |
| 09) 현장 속으로 2
해외 사회적기업 지원활동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이 합니다 | 재단소식
18) 재단 동향 및 이슈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



GS칼텍스 박필규 CSR추진팀장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경제 상황에서 바닥을 치고 있는 실업률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박필규 팀장은 일자리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GS칼텍스와 함께일하는재단은 예술치료사 경제적 자생조직 구축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치료사들의 고용안정을 꾀하고 안정적인 사업구조 정착으로 이들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한다. 기업이 가진 자원을 후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해 나가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2013년부터 심리적·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집단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던 GS칼텍스 박필규 팀장에게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들어본다.

글 | GS칼텍스 박필규 CSR추진팀장

편집 | 운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한국경제

과거에는 경제성장과 동시에 고용이 확대되었지만, 이제는 기술발전과 기업의 인력효율화 및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인해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청년의 취업절벽이 매우 심각하다. 통계청의 2018년 5월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0.5%, 체감실업률 23.3%라고 한다. 또한 선진국이 평균 12% 수준인데 반해, 25.5%에 달하는 자영업자 비율은 우리 사회 일자리의 또다른 어려움을 보여준다. 역설적으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의 수출실적이 역대 2위에 달할 만큼 우리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열매가 사회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사회적경제

이런 가운데 일자리 감소와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간에서 청년, 노인 등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만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대학에 사회적경제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창업팀 지원을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이 향후 5년 간 사회적경제 기업에 신용보증 5,0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기업 간 협업이 필요한 이유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정부, 지자체나 대기업 등의 외부 지원을 벗어나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자립기반을 확보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다. 저임금의 단기 일자리를 양산하기 쉬운 현실도 극복해야 하는 과제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후원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대기업의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의 총량이 커지는 것이 주는 효과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온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전이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를 추진하는 조직과 개인들도 기업을 후원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연계성 측면에서 서로 윈윈하는 성공모델을 만들겠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참여에도 전문성 필요

GS칼텍스는 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새롭게 동참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심리적·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집단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마음톡톡 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전문적으로 육성한 예술치료사들은 GS칼텍스가 아동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치유를 지원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종사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예술치료사라는 직업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에 GS칼텍스는 사회공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게 확장하기 위해 2018년 함께일하는재단과 파트너십을 맺고, 예술치료사의 경제적 자생조직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과 사회적 가치 실현

GS칼텍스는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사회공헌활동을 토대로 예술치료사의 사회적경제 모델 구현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동시에 마음이 아픈 사회구성원의 심리정서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시장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기존 시장과 충돌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원칙을 세웠다. GS칼텍스와 함께일하는재단의 노력이 값진 결실을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다.

물론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감소와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의 성공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사회적경제 성공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풍성해 진다면 사회적경제가 성공하는데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함께일하는재단은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가로서 자질과 창업의지를 가진 이들을 육성하는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소음대책 지역의 소공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꽃보다 재활용 리턴즈~

축제 뒤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유쾌!상쾌!통쾌!한 유상통프로젝트!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얼마나 환경문제를 실천하고 있을까요? 축제 및 행사 이후의 쓰레기 처리 과정을 재미있는 퍼포먼스로 풀어내 축제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소셜미션을 가진 기업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함께하는재단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8기로 선정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상통프로젝트'입니다. 실천 환경운동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분리수거 방법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재미있게 시민들과 소통하며 환경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회적기업을 소개합니다.

글 | 운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답변 | 유상통프로젝트 오동석 대표

환경문제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청소반장

"유상통프로젝트는 유쾌, 상쾌, 통쾌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공연창작거리집단이에요. 멸종위기 동물,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문제 등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거리퍼포먼스로 풀어내 대중들에게 경각심을 알리고 있는 기업이죠. 청소반장 유상통이 지나간 거리는 항상 청결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 기업의 목표예요"라며 오동석 대표가 유상통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 장위동은 재개발지역이 되면서 쓰레기가 넘쳐났어요.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버리고 간 짐들 때문이죠." 그는 처음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니,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각 지역마다 분리수거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도 인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사실이에요. 사회적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그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감동, 교육, 재미와 의미를 모두 전달할 수 있는 유상통프로젝트였습니다.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거리퍼포먼스

환경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일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상통프로젝트는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공연 대기시간이 길다보니 대기공간을 청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고 관객들도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양한 재활용품을 활용한 악기와 복장 등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습니다. "지금의 복장은 건설현장의 폐기물들을 가져와 작업한 것이고 소품들은 재활용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상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쓰레기들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환경문제로 연결해 냈습니다. 문득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한 유상통의 고민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사회적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내는 유상통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해결이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끌어가는 부분이 중요하고요"라며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상에서 겪고 있는 대기오염문제 등은 곧 닥쳐올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환경문제는 생존과 가장 직결되어 있거든요."

거리공연을 통해 대중들이 친숙하게 분리수거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유상통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분리배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재활용분리배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실한 분리수거와 의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1. 비운다
용기 안의 내용물은 깨끗이 비워 배출한다



2. 행군다
재활용품에 묻어있는 이물질, 음식물은 닦거나 헹궈서 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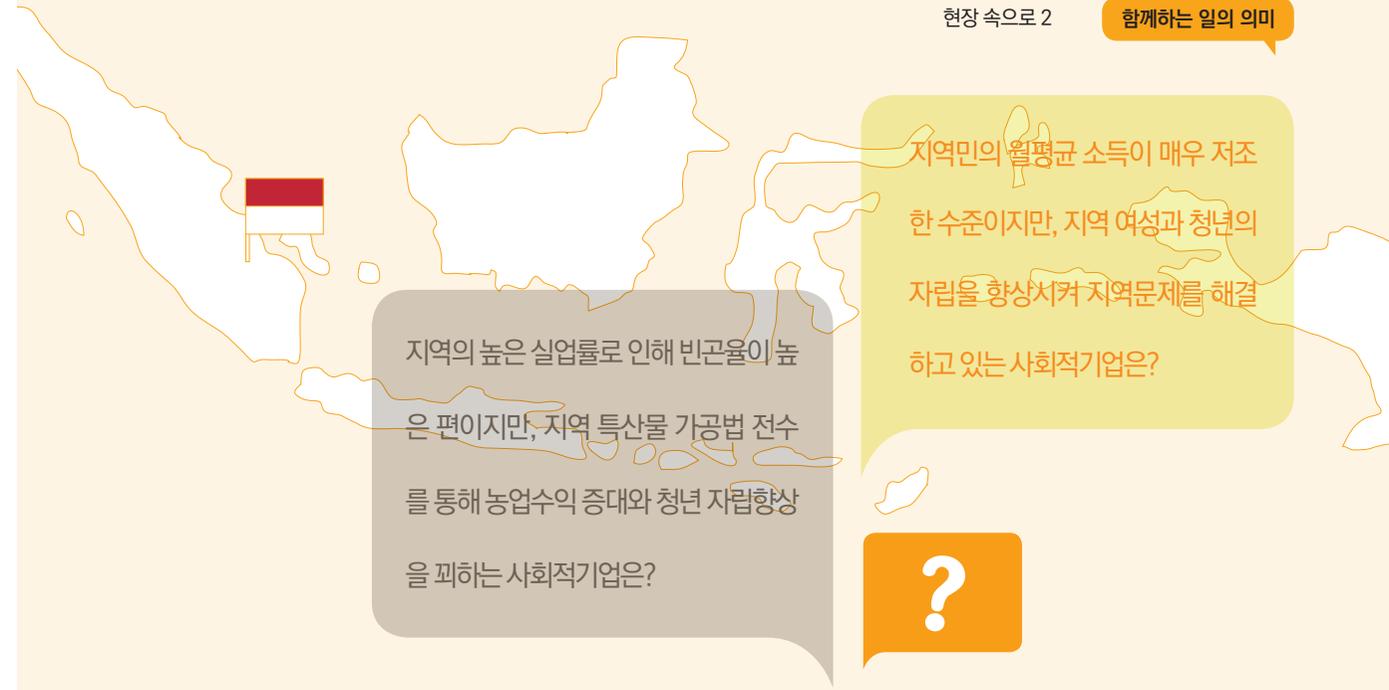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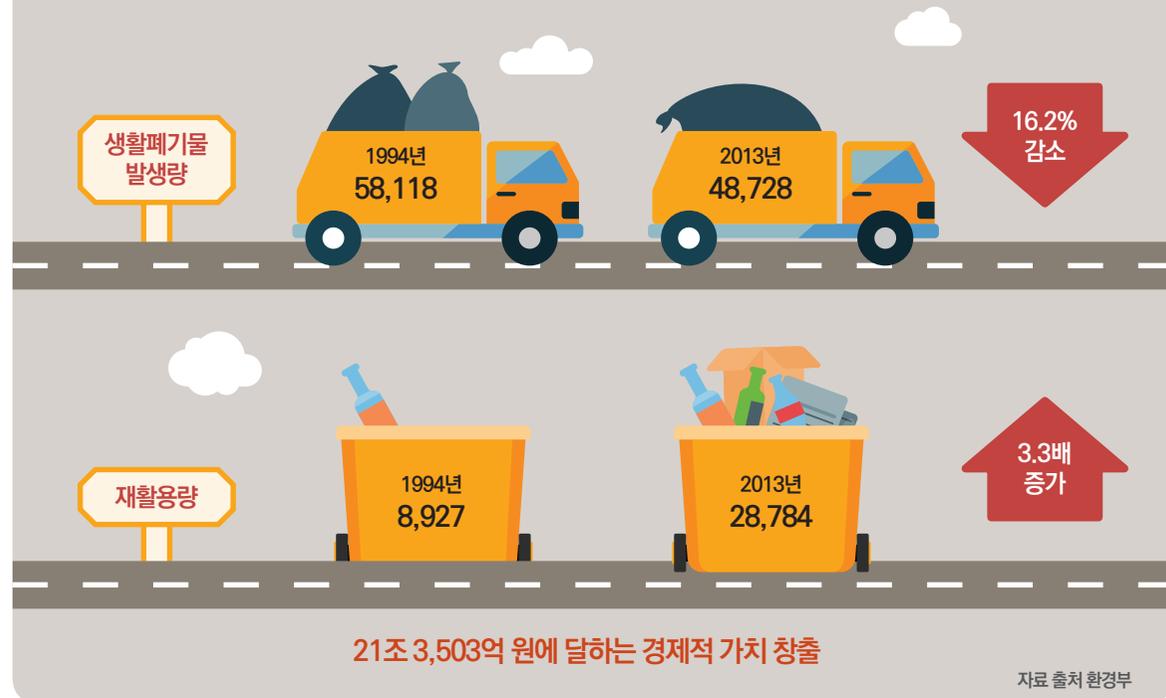


3. 분리한다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은 별도 제거 후 배출한다



4. 섞지 않는다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하여 배출한다

분리배출을 해야 하는 이유 단위: 톤(1일 기준)



지역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빈곤율이 높은 편이지만, 지역 특산물 가공법 전수를 통해 농업수의 증대와 청년 자립향상을 꾀하는 사회적기업은?

지역민의 월평균 소득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지만, 지역 여성과 청년의 자립을 향상시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해외 사회적기업 지원활동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이 합니다

재단은 해외 빈곤아동·가정지원 사업으로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으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6기 중 한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지역민의 월평균 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지역 여성들이 공동체 기반으로 수공업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여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에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웃음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이 지역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소개합니다.

취재: 글 | 운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지역 여성들의
수공업품 제작으로
지역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인도네시아 ‘두안얌’



Before

두안얌은 지역민의 월평균 소득이 1~6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아 각자의 토지에 농산물을 심어 자급자족하며 끼니를 이어가는 이슈를 발견했습니다. 지역의 빈곤 여성들을 위해 야자수잎을 이용한 수공업품을 제작해 지역민의 수익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After

두안얌은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사업 기관으로 참여하면서 국제핸드메이드페어 등에 초청되어 한국시장에 대한 이해와 시장 진입 가능여부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안얌 제품 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한국 사회적기업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디자인면에서 함께 상품을 제작하면 좋겠다는 꿈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제품의 질이 향상됐고 마케팅 분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임팩트 평가도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두안얌은 인도네시아 동부지방에서 450명이 넘는 여성들과 함께 일하고 있고, 실제로 그 여성들의 수입이 40%가량 증대되었습니다.



두안얌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에게 자립할 힘을 심어주고 여성과 어린이 보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공예품을 생산 및 유통하고 있는 해외 사회적기업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역민들과 함께 섬 지역 전역에서 생식해 구하기 쉬운 야자수잎을 활용해 바구니, 지갑, 액세서리 등 집안을 장식할 수 있는 패션 제품들을 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법을
알려주어
청년들의 역량을 키우는

인도네시아 ‘자바라’



Before

인도네시아 동쪽에 위치한 플로레스 섬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지역의 23%가 빈곤한 편입니다. 인도네시아 농부들은 대부분 50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35세 이하의 젊은 농부는 12%에 불과합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운 먼 지역의 섬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물 가공법을 전수해 주고 농업의 수익성을 증진시켜 청년층이 마을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경향을 줄이고자 합니다.

After

자바라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바라아카데미를 운영해 지역 농산물을 가공, 상품에 라벨을 붙이고 디자인하는 가공식품 장비 사용기술을 전수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차세대 농부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지원금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세 가지 시제품을 개발했고 이 외에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는 농부들과 협력하여 식품의 다양성을 지키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현재는 5,000여 명 이상의 농부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지역 청년들을 농부로 양성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바라 아카데미는 영세한 소규모 자작농이 부가가치 상품을 판매하는 요식업자로 변모하도록 돕는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농산물을 가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회적기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역량있는 청년들을 양성해 자바라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세상을 향해 외쳐라~!
마이크 잡스 microphone jobs



일과 관련된 도구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재미있는 직업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수단 중 하나인 마이크를 이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직업군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 가육성사업 8기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로 각자의 미션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취재·편집 | 운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마이크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정체성이다”

몽작소_이찬영 대표
(청년뮤지션 일자리창출)



음악을 하는 것도 한 사람의 아이디어, 한 사람의 목소리일 수도 있지만 마이크와 함께 한다면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키워서 좀 더 멀리 소리가 퍼지게끔, 명확하게 들릴 수 있게 해주는 매체가 마이크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마이크를 잡는 것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는 한국의 목소리다”

가이드협동조합_호기현 대표
(로컬관광활동가양성교육 프로그램)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되는 목소리가 단순히 우리의 소리가 아니라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한국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통역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 마이크는 공유다”

텍스트에와이파이를켜자_강병재 대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생 문해 교육)



마이크를 통해 교육 내용을 같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듣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강사가 아니더라도 질문자도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갖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나누는 교육공간에서 마이크는 공유를 위한 소중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는 에너지의 전달이다”

유상통프로젝트_오동석 대표
(폐막전문 초청공연)



말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를 담아 확장성 있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마이크가 재미의 요소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공연을 하는데 있어 하나의 전달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소한다는 의미와 에너지 전달이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에서 on 편지’ 인과연 편

사회적경제와의 함께

여러분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론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아직도 생소하지 않으신가요? 사회적경제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뜻하는데요. 설명보다는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일에서 on 편지가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내일에서 on 편지는 청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릴레이 기부 캠페인입니다.

글 취재 | 운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인터뷰 |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윤주일 팀장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소셜벤처기업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윤주일 팀장입니다. 특화 프로그램의 경우 청년 소셜벤처 기업과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차별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들에게는 시장개척과 성장의 기회를 공유하는 윈-윈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아주 멋진 일을 하고 계신데 함께일하는재단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재단과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첫 만남은 2006년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급식사업’에 참여하면서부터였어요. 지금은 재단과 양천구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소공인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민관 파트너로서 소중한 인연을 지속해 나가고 있어요.

“함께일하는재단과 인연을 맺은 지 10여 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민관 파트너로 그 소중한 만남을 지속해 나가고 있어요”



회의 중인 윤주일 후원자(좌)

‘내일에서 on 편지’에 가입하게 된 특별한 동기나 사연이 있으신가요?

지인의 소개가 있었고 이전에는 없던 차별화된 후원 방식이 마음에 들어 참여하게 됐어요.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업무가 ‘내일에서 on 편지’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매력적인 디자인의 양철 케이스와 릴레이 방식의 캠페인은 대중의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내일에서 on 편지만의 차별화된 후원방식이 마음에 들었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업무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어요”

릴레이 기부 캠페인인 ‘내일에서 on 편지’를 지인분에게 제안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제안해 본 적은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제안해 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금액이 어떻게 사용될길 바라시나요?

소셜벤처의 고용창출에 쓰이길 바라요. 정부의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한시적이기 때문이에요. 청년 사회적기업의 핵심 인력이 안정적인 고용으로 장기 유지되어야 사회적기업 인재양성이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지원 단체 중에 함께일하는재단을 후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업 파트너로 함께 지내면서 기관에 대한 신뢰가 쌓였고 그때의 인연으로 재단을 후원하고 있어요. 또 재단은 지난 7년 간 양천구에서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를 운영하며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소중한 비영리재단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에 후원을 하고 있는 재단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비영리재단이에요”

재단의 소식은 평소 어떤 경로를 통해 받아보고 계신가요?

분기별 소식지를 통해 기관의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소식지에 후원 의 성과와 결과가 공유되어 기관을 믿고 후원에 동참하고 있어요.

내일에서 on 편지는 이렇게 기획되었습니다

문의 02-330-0713, 02-330-0711

1. Why 왜 만들어졌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연결의 힘’을 확인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내일을, 청년들에게 밝은 내일을 찾아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 How 모금은 어떻게 하지?

기부 키트를 전달하는 방식의 릴레이 기부 캠페인으로 기획되었으며, 캠페인 참여방식을 설명하고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기부증서를 작성하여 참여하게 됩니다.

3. What 기부금으로 무슨 일을 하지?

개인 기부를 확산하여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꿈을 가진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4. Story 내일에서 on 편지 이야기

아직도 주변에 내일에서 on 편지 캠페인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기부를 망설이고 있는 지인들이 있다면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해 주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내일에서 on 편지에 참여할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Thanks to...

윤주일 후원자님이 꿈꾸는 세상, 함께 일하며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단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윤주일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한다는 공통점이 재단과 지속적인 인연으로 이어지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후원자님의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얻어갑니다. 후원자님이 바라는 세상은 함께일하는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후원자님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내일에서 on 편지 QR코드

내일에서 on 편지의 주인공이 되려면 클릭해 주세요. 세상을 밝히는 내일에서 on 편지에 동참해 주세요.



밥먹고, 홍보하고, 고민하는 '함께캠페인'

재단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사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으로 함께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창업 후 1년, 창업팀이 홍보 방안에 대한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2017년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한 29개 창업팀에 소기업 맞춤형 홍보전략을 제공했으며, 질의응답 형식으로 기본에 충실한 홍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0월에도 '당신을 홍보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해외협력 네트워크 '2018 사회적기업월드포럼'

사회적기업월드포럼(SEWF)은 2008년 이후부터 매년 전 세계 1,000여 명의 사회적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배우고, 성장하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입니다. 재단은 매년 중요 지위로 참가해 한국 사회적기업에 대한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해외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왔습니다. 2018 사회적기업월드포럼은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9월 12~14일까지 진행되며 재단 국제협력사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생존과 성장이 함께하는 '허그 세어하우스' 3호점

허그(HUG) 세어하우스 3호점(신촌점)이 오픈합니다. 도시재생 관련 종사자 및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침실과 공유주방과 스터디공간, 커뮤니티공간 등이 제공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원으로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의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9월 1일 입주자 시작이니 입주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생각 '소셜벤처 경연대회'

올해 10번째로 개최되는 2018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을 기다립니다. 청소년·대학생 부문에서는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일반창업 글로벌성장 부문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모집합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8월에 권역대회가 이뤄지고 8~9월 간 멘토링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9월에는 전국대회를 통해 최종심사 및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성화고교생 자격증교육 'IT 꿈나무 성장지원 사업'

함께일하는재단은 현대오토에버와 함께 지난 7월 23일 재단 WT 교육실에서 정보기술(IT) 꿈나무 성장지원 사업 장학생서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재단은 IT 꿈나무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네트워크 분야 취업에 필요한 CCNA·CCNP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 진로 탐색의 기회와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정된 특성화고교 학생 35명에게 네트워크 분야 자격과정 교육을 위한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네팔 사회적기업 공정여행 프로젝트 '같이 가요. 가치여행'

재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및 봉사활동에 참가할 사회적 경제조직 (예비)창업자 및 취업(예정)자를 모집합니다. 선발된 40명은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네팔 카트만두로 연수를 떠나며 일체의 경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들은 네팔 사회적기업의 이해 증진과 현장체험을 통해 역량을 강화합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카카오 같이가치와 함께 온라인 모금함을 열었습니다. 카카오 같이가치 '착한기업' 모금함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거나 직접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친구에게 공유하거나 댓글만 달아도 카카오가 1건당 200원씩 기부해 주기 때문에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착한 기업들을 응원해 주세요~

글 | 운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알로하아이디어스

**"마음을
어루만지는 동화책"**



다문화 가정과 조손 가정 등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 보조기인 '담뱃이'를 제작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담뱃이를 통해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고유문화와 언어 콘텐츠를 배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금액 이렇게 사용됩니다》
입양아동과 부모 간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독서보조기기 담뱃이 지원

어반비즈서울

**"발달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도시"**



도시양봉을 통해 사라져가는 꿀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유전적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꿀벌을 키워냄으로써 꿀벌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도시양봉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액 이렇게 사용됩니다》
발달장애 아동의 자연생태 프로그램 진행

꿀림

**"폐지수거인의 안전한
발걸음을 돕습니다"**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사회적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폐지 수거용 리어카에 광고를 붙이고 광고 수익의 일부를 어르신들에게 돌려드림으로써 수익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6개구에서 꿀림 리어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금액 이렇게 사용됩니다》
매일 수심 프로그램을 짐을 끌어야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화 제공

모나콘

**"소아암 환우에게
일상을 선물합니다"**



모발나눔콘서트 강연과 공연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가발을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현장에서 참가비 1만원을 기부하여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162개의 가발을 선물했습니다.



《모금액 이렇게 사용됩니다》
공연장 대관비를 마련하고 공연으로 얻은 수익금은 소아암 아이들의 가발 지원

* QR코드를 이용해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아버지의 카메라는 I am your Energy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웃을 때도, 울 때도,
항상 우리를 향해 있었던 아버지의 카메라.
가족끼리 소중한 추억, 하나라도 더 남겨 놓으려고,
셔터를 누르기 바쁘셨던 당신의 그 마음,
아버지가 되어서야 헤아려 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I am
your
Energy



함께일하는재단과 GS칼텍스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어우러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399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6길 36

대표전화 02-338-0019 | 팩스 02-338-3995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 02-330-0724~8